

8월의 희망,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세요...



사랑하는 한국프로사진협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장 이경희입니다.
어느덧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8월이 찾아왔습니다. 뒤편 아래에서도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담아내시는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진인에게 8월은 단순한 여름의 한복판이 아닙니다. 우리 협회는 평창 모나 용평에서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라는 큰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공유의 장을 넘어, 우리 프로 사진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설계하고 서로의 예술적 영감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신 사진 기술 교육은 물론, 업계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자재 전시와 캐논
촬영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진인들이
묵묵히 지켜온 ‘사진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한민국 사진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모여 흘리는 땀방울이 곧 우리 협회의 역사가 되고, 사진계의 미래가 됩니다.
평창의 맑은 공기 아래,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마주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모든
회원님께 새로운 영감과 도약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8월, 전국에서 모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여러분의 카메라 소리가 세상의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답게 울려 퍼지길 기원합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장 **이경희**

Contents

Korea Professional
Photography Association
Magazine



권 두 언

03 이경희 회장

K P P A 소 식

- 06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08 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현장 답사
- 10 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강좌 안내
- 12 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일정표
- 13 캐논 & 니콘 본사 방문
- 14 2026 한국해양재단 주최 독도 탐방
- 18 제34대(13-14) 지회장단 몽골 문화·사진 탐방
- 21 제3회 포맥스 어워드 한국인상사진대전

K P P A 인 상 사 진

- 24 류수민 작가
- 26 박용호 작가
- 28 박응태 작가
- 29 이정희 작가
- 30 최병희 작가

K P P A 지 회 · 지 부 소 식

- 32 서울특별시지회 7월 월례회의 및 교육
- 33 2026 제39회 인천광역시지회 하계세미나
- 34 2026 제32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 연수대회
- 35 제48회 경기도지회 연수대회
- 36 경기지회 촬영대회 심사결과
- 37 경기지회 촬영대회 금상
- 38 경기지회 촬영대회 은상
- 39 경기지회 촬영대회 동상
- 40 2026 충북지회 청주시지부 6월 월례회

K P P A 농 수 산 물 소 개
42 천안 임흥철 호두기름

K P P A 풍 경 사 진
46 권혁만 작가
47 김갑수 작가
48 김현호 작가
49 서현호 작가
50 이용일 작가
51 이희춘 작가

K P P A 교 육
54 Photoshop(스킨톤): 건강피부톤 보정
56 선배님의 사진, AI로 되살리다
58 고객의 발걸음은 검색에서 시작된다
59 위인전기와 학회지 표지로 재탄생된 사진복원
60 구름이 없는 이유

특 집 · K P P A 타 임 머 신 · 가 상 대 담
64 사진은 공짜가 아니다

편 집 후 기
66 편집후기 및 쿼즈



ABOUT
THE COVER

작품제목 환한 미소, 눈부신 하루

작가노트 깊은 검정 배경을 캔버스 삼아 환하게 피어오르는 미소가 화면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몸을 살짝 틀어 카메라를 향해 자연스럽게 시선을 건네는 인물의 자태에서 당당함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지며, 측면에서 부드럽게 감싸는 조명이 피부결과 머릿결을 따라 은은한 빛을 만들어낸다. 시스루 소재 의상의 섬세한 질감이 인물의 개성을 한층 돋보이게 하며, 청춘이 지닌 빛나는 순간을 스튜디오 안에서 온전히 포착해낸 작품이다.



최병희 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홍보위원
現 청스튜디오 대표



寫壇

2026. 8. VOL. 583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주소 049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91 사진회관
대표번호 02-4545-600 (FAX 02-4545-608)
홈페이지 www.kppa.co.kr
E-mail kppa1955@hanmail.net
웹하드 www.webhard.co.kr (ID kppa1955 / PW 1234)
계좌번호 301-0127-4083-41 (농협은행)
예금주 한국프로사진협회

발행인 이경희 회장
발행일 2026년 8월
창간일 1977년 9월 / 매월 25일 발행 / 월간 비매품
편집장 한장훈 홍보위원장
편집위원 이만식 부회장, 변준섭 사무처장, 김용우 홍보위원
인쇄·디자인 (주)미디어퍼펙트 02-903-2773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 사진 및 기타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41대 회장·감사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회장 후보 기호 1번 이재범, 기호 2번 정태민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사진 이해승 협회 주재기자



선거관리위원회(육재원 선관위원장)는 지난 6월 24일 커피오피스(대전소재)에서 2차 선관위 회의를 열었다. 참가자는 육재원 선관위원장, 이동재 선관위 간사, 김동일 위원, 김상열 위원, 박태식 위원, 송원호위원, 정두헌 위원이 참석을 하였다. 회의안건은 회장, 감사 등록의 건으로 회의를 하였다.

선거등록 마감일인 7월 23일에는 본 협회(사진회관)에서 제41대 회장 및 감사 선출총회를 앞두고 선거 준비 회의를 열었다. 선거관리위원장 육재원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선관위 위원, 회장 후보자, 감사 후보자, 사무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현황과 선거 운동 규정, 주요 일정 등을 안내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회장 후보는 기호 1번 이재범, 기호 2번 정태민으로 확정됐다. 기호는 협회 정관에 따라 접수 순위로 부여된다. 감사 후보는 1인 등록에 그쳐 정원(2인) 미달로 재 공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7월 24일 재공고 발송 후 7월 30일까지 추가 등록을 접수받으며, 이후에도 미달 시 3차 공고를 거쳐 총회장에서 별도 결정한다. 홍보물 내 '출마자' 표기는 '후보자'로 수정하도록 요청됐다.

감사 선출 방식은 현행 규정에 따라 감사 후보가 1인이든 복수이든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반대가 과반 초과 시 탈락 처리되며, 복수 출마 시 최소 득표자부터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규정은 제63회 여수 세미나 이후 단독 후보를 선관위원장이 직접 위촉하던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 개정된 것이다.

선거 운동 규정에 관해서는 허용 사항과 금지 사항을 명확히 안내했다. 허용 사항으로는 인터넷·방송을 통한 동영상 토론, 홈페이지·회보 공보물 홍보, 유무선 통신 및 문자 메시지 홍보, 제3자의 등록 사실 고지(지지 독려는 불가), 후보자 2인 합의를 시 지역 간 담회 공동 개최가 있다. 금지 사항으로는 전국 순회, 물품·금품·상품 제공(적발 시 후보자 자격 박탈), 타인 비방 동영상 제작, 지역 선거 본부 설치, 선거 개시일 이전 지지 독려 문자 발송이 명시됐다.



2차선관위회의(대전)

선거 운동 개시는 2026년 8월 5일 0시(8월 4일 자정)부터이며, 선출총회는 세미나 둘째 날인 8월 25일(화)에 진행된다. 투표용지 도장 판정 기준도 안내했다. 해당 후보자 칸 내 날인은 유효하며, 두 후보자 경계선에 걸친 날인은 무효로 처리한다. 투표 당일 간사가 방송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선거 기탁금 처리는 인쇄비·발송비 등 선거 경비 공제 후 잔액을 차기 집행부에 이관한다. 선관위가 별도 관리하며 임의 유용 시 횡령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명확히 밝혔다.

후보자 후원의 밤은 선거 기간 내 1회 허용을 하는데, 선거 운동 기간(8월 5일~24일) 내 후원의 밤 행사를 1회 한정 허용하기로 하였다. 후원의 밤 개최 일시는 선관위에 사전 통보해야 해야 하는데, 협회 발전 기금 모금과 회원들의 지지를 수렴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세미나 미참가자 선거권 및 선거 운동 범위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회원이면 선출총회 참석 및 투표가 가능하다. 선출총회는 세미나 참가와 별개 행사이므로 선거권 행사에 세미나 등록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 단, 행사 기간 중 숙박·식사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장 등록(참가비 납부)을 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후보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 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했다고 밝혔다. 제41대 회장 선출총회는 2026년 8월 25일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기간 중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거행된다.



육재원 선관위원장



회장, 감사 후보자



3차 선관위 회의(사진회관)

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현장 답사

모나 용평 리조트 강의장·안전·행사 운영 전반 점검

| 취재 및 사진 한장훈 홍보위원장

(사)한국프로사진협회(회장 이경희)는 지난 7월 20일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 모나용평 리조트를 방문해 현장 답사하였다. 이번 답사에는 이경희 회장, 김동한 총무위원장, 나영균 기획위원장, 홍상표 재무위원장, 안규석 대외협력위원장, 한장훈 홍보위원장, 박수만 사진문화이사, 변준섭 사무처장을 비롯한 집행부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리조트 총지배인이 동석해 협의하였다. 중식을 마친 뒤 시작된 회의는 김동한 총무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동한 총무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세미나 일정 확정, 용평리조트 계약, 업체 미팅, 초청장 발송 등 현재까지의 사전 준비 사항을 보고했다. 현장 필요 물품, 인쇄물, 세미나 교재, 행운권, 현수막, 협찬품 확보 등 사무처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했다.

답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회원의 안전이었다. 또한 과거 행사에서 기자재 부스 과부하로 전원이 세 차례 차단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멀티탭 사전 검수와 전원 분리 배치로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참가업체의 전기 배선 점검도 사전에 사무국과 협조해 진행할 예정이다. 리조트 측은 매년 행사 후 테이프 자국이 남아 시설 복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전달했으며, 협회는 바닥 케이블 고정 시 자국이 남





지 않는 전용 테이프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기자재 전시 구역 조명이 어둡다는 업체 민원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으며, 리조트 측에 추가 조명 설치를 요청했다.

사진인의 밤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데, 기존 두 줄 뷔페 방식에서 음식을 4개 섹션으로 분산 배치해 혼잡을 줄이기로 하였다. 전문 MC 섭외도 검토 중이며, 색소폰 연주와 전문 음향 오퍼레이터를 함께 운영해 행사 분위기를 높이는 의견이 나왔다. 캐논 카메라 3대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며, 어도비사(Adobe)에서 협찬품 지원받아 노약자·여성 회원에게 우선 배포할 예정이다. 레크리에이션 전문 사회자 섭외 의견도 제시됐으며 검토 중이다. 강의실이 세 곳에서 동시에 운영되는 만큼 참가자들이 쉽게 강의장을 찾을 수 있도록 강의장 입구에 A·B·C 표기를 크게 부착하자는 의견이 있어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답사를 통해 집행부는 세미나 운영의 미비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는 2026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강원도 평창 모나 용평 리조트에서 열린다.



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강좌 안내

기술·마케팅·AI 실무까지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안내

| 취재 및 원고작성 류수민 교육자격위원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진)는 오는 2026년 8월 2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67회 국제 프로 사진세미나의 강좌를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 마케팅, 인공지능(AI) 활용의 3가지 테마로 12개 강좌를 구성하였으며, 급변하는 사진 산업 환경 속에서 회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을 완성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사진관 운영 전반에 깊숙이 파고드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AI 관련 강좌를 대폭 강화한 점이 이번 세미나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기존 회원은 물론 사진 산업에 새롭게 뛰어드는 신진 사진가들에게도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였다.

첫째날



김용성 강사



한철진 강사



유현수 강사



조형준 강사

· [김용성 강사] 김용성의 사진이야기(사진쟁이와 작가는 다르다)

사진만 공부하면 사진쟁이가 된다. 작가는 되지 못한다. 작가에게는 “이건 누구의 것이다”라는 자기가 있어야 한다.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이 촬영한 것이라 느껴야 비로소 작품이다. 김용성 선생님은 사진을 하며 그 본질을 찾아갔다. 음악과 미술을 좋아했고, 미술의 구도(構圖), 디자인의 의미, 음악의 화성(和聲)이 사진 안에 어우러지도록 형태를 만들었다. 사진에 음악적 요소를 심자 이해가 빨라졌다. 잠재된 능력은 일을 하면서 끼워 맞춰진다. 파고들고, 찾고, 스스로 만들어진 사람이 되어 실력을 키워야 한다.

· [한철진 강사] 이보트 교육 & 학교 앨범 작업

학교 앨범 제작은 단순한 사진 편집을 넘어 기획·촬영·후반 작업·납품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실무 분야다. 이번 강의에서는 앨범 전문 플랫폼인 이보트의 기본 운용법부터 실제 학교 앨범 제작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한다.

· [유현수 강사] 우리 사진관 젊은 직원 AI

이미 대중화된 AI를 사진관 운영 현장에서 더욱 쉽고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AI를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임을 강조하며, 실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 [조형준 강사] AI 응용 원클릭 퍼펙트 컷아웃 기법

클릭 단 한 번으로 완벽한 누끼를 추출하는 최신 AI 기법을 공개한다.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 가능하며 별도 구독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증명사진·프로필사진·제품사진·합성작업 등 실무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부터 고급 테크닉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둘째날



강성호 강사

· [강성호 강사] AI 스튜디오 비즈니스

촬영·보장·홍보·고객 경험 전반에 걸쳐 사진관 운영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AI의 실무 활용 사례를 다룬다. AI 이미지 제작과 영상 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AI를 단순한 유행이 아닌 사진관의 경쟁력과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로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백옥희 강사

· [백옥희 강사]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도 취미는 못 뺏지

19년 차 유튜버인 백옥희 강사가 AI 등장 이후 3년간의 변화를 짚으며,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다움과 창작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사라질 직업이 아닌 남게 될 가치에 주목하며 취미와 창작을 통한 새로운 삶의 방향을 탐색한다.



이강신 강사

· [이강신 강사] 사진, 빛으로 그린 이야기

사진은 카메라 기술을 넘어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빛을 이해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빛과 피사체를 마주하고 이야기가 담긴 사진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을 나눈다. 이강신 작가의 저서 『사진, 빛으로 그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윤우석 강사(캐논)

· [캐논 카메라/윤우석 강사]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로 인물 사진의 정확한 노출과 톤을 만들기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로 인물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노출의 사진을 얻기 위한 카메라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과, 정확한 노출 및 톤을 가진 사진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을 알아 보는 시간입니다.

1. 정확한 노출의 인물 사진 촬영을 위한 카메라의 다양한 설정
2. 카메라 제조사의 색감을 그대로 연출하기 vs 나만의 인물 사진 색감을 만들기
3.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 라인업의 특징과 장점, 추천 렌즈



이창준 강사(니콘)

· [니콘 카메라/이창준 강사] 사진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렌즈 지식을 명확히 이해한다

사진가가 세상을 보는 방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도구인 렌즈. 그 렌즈의 어원부터 오목렌즈와 볼록렌즈의 기본적인 역할부터 이해한다.

1. 군(群)과 매(枚) 2. 초점거리(focal length) 3. 화각과 원근감
4. 조리개와 심도 5. 렌즈의 코팅 6. 렌즈의 보관과 청소

셋째날



김희덕 강사

· 어도비 파이어플라이(Adobe Firefly)

· [김희덕 강사] 스마트폰 사진 강사 되는 법

스마트폰은 이제 누구나 손에 쥔 카메라이자, 가장 빠르게 대중 속으로 파고든 사진 교육의 매개체가 되었다. 고가의 장비 없이도 빛을 읽고 구도를 잡으며 감성을 담아내는 사진의 본질은 스마트폰 촬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강사에 대한 수요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원리와 촬영 모드 활용법부터 현장에서 바로 써먹는 구도·빛·색감의 노하우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제67회 국제 프로 사진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진 산업의 흐름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전략을 습득하는 최고의 기회다. 협회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가를 바란다. 세미나 일정 및 참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에 문의하기 바람에 집행부의 사정으로 변동 될 수 있다.

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일정표

	8월 24일 (월)			8월 25일 (화)			8월 26일 (수)					
시 간	A	B	C	A	B	C	A	B	C			
08:00 ~ 09:00				조 식 08:00 ~ 09:00			조 식 08:00 ~ 09:00					
09:00 ~ 10:00				선출 총회 09:00 ~ 12:00 (대강당)	11강 어도비 파이어 플라이 (서화경 강사)	12강 스마트폰 사진강사 되는법 (김희덕 강사)						
10:00 ~ 11:00												
11:00 ~ 12:00	접수 및 기자재 관람						사진진흥법 경과 보고					
							폐 강 식 (대강당)					
12:00 ~ 13:00							중 식 12:00 ~ 13:00			중식 및 해산 12:00		
13:00 ~ 14:00							05강 증명사진을 활용한 AI 변환어플 제작 (강성호 강사)	06강 쇼츠영상 제작 및 홍보 (백옥희 강사)	07강 프로필 촬영 (이강신 강사)	· 주관 : 협회 사무처 및 기획위원회 강의 · 진행 : 교육자격위원회 * 행사 계획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kppa.co.kr 02-454-5600		
14:00 ~ 15:00												
15:00 ~ 16:00	01강 사진 이야기 (김용성 강사)	08강 캐논카메라	09강 니콘카메라	10강 드론 강의								
16:00 ~ 17:00	장내 정리	촬영대회 및 관광 16:00 ~ 18:00										
17:00 ~ 18:00	개 강 식											
18:00 ~ 19:00	석 식											
19:00 ~ 20:00	02강 이보토 교육 & 학교앨범 작업 (한철진 강사)	03강 AI 기초 및 프롬프트 제작 (유현수 강사)	04강 AI응용 원클릭 컷아웃기법 (조형준 강사)	사진인의 밤 만찬 및 지회의 밤 18:00 ~ 21:00								
20:00 ~ 21:00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캐논 & 니콘 본사 방문

국제프로사진세미나 후원 및 협력방안 논의

취재 변준섭 사무처장
촬영 이해승 협회 주재기자



캐논 방문



니콘 방문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이경희 회장과 김동한 총무위원장, 이해승 복지정책위원장, 민대인 정책자문, 신건정 서울지회장은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캐논 본사를 방문해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후원 방안과 양 기관의 상호 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의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캐논의 후원 참여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프로사진 문화 발전과 사진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앞으로도 국내 사진산업 발전과 회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한국프로사진협회 방문단은 니콘이미징코리아 본사를 찾아 카메라 전시장을 둘러보고, 이창준 매니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카메라 시장의 동향과 사진산업의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의 취지와 운영 계획을 소개했다. 이창준 매니저는 세미나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고, 향후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6 한국해양재단 주최 독도 탐방

우여곡절 끝에 마주한 독도, 힘겨웠기에 더욱 특별했던 탐방

| 취재 유현수 교육자격위원

| 촬영 윤종성 자문, 최병희 홍보위원



협회(회장 이경희)는 지난 7월 15일 2026년 한국해양재단이 주최한 울릉도·독도 역사 탐방에 3박 4일의 일정으로 본 협회 작가들이 함께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새싹회 등 약 80명이 참가한 이번 탐방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본 협회에서는 이경희 협회장, 서호경 부회장, 장광동 감사, 민대인 정책자문위원, 윤종성 자문, 권혁만 자문, 이경덕, 조민호, 신원재, 이채일, 최병희, 안수민, 유현수, 이광영 회원이 참여하였다.

이경희 회장은 독도 탐방 전 사무처 변 차장이 해양재단을 방문해 사전 미팅을 진행, 불편함 없도록 미리 조치하였으며, 탐방 첫날 해양재단 센터장과 간담회 진행하였다. 협회는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고 이동해 단합된 모습을 보였으며, 윤종성 자문이 80명 단체 사진 및 개별 촬영 등 행사 전반을 주도적으로 기록하여 협회의 위상을 높였다.

1일 차 (7월15일 수요일) 포항 집결, 독도 특강, 크루즈 출항

KTX 포항역 도착 ▶ 오리엔테이션 ▶ 독도 특강 ▶
포항 관광지 촬영 ▶ 석식 한식뷔페 ▶ 크루즈 탑승(밤 11시 출항)

참가자들은 각 지역에서 KTX를 타고 포항역으로 이동해 오후 2시 포항 선착장에 집결했다. 각지에서 차량으로 온 참가자들과 합류하였다. 셔틀버스로 이동하여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독도의 역사와 영유권 문제를 다룬 독도 특강 또한 진행됐다. 특강은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라는 것을 새삼 일깨워 주는 자리였다. 특강 후 독도에 입도하여 단체 사진에 사용하는 현수막을 위해 현수막에 핸드프린팅을 하였다. 오후 4시부터는 포항 관광지를 돌며 사진을 촬영하고, 한식뷔페에서 석식을 마치고, 포항의 또 다른 촬영 명소에서 촬영을 하였다. 그 후 크루즈 탑승을 위해 크루즈 터미널로 출발하였고, 밤 10시 크루즈에 탑승해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진 뒤 음료를 나누며 담소를 나눈 후, 밤 11시 출항과 함께 울릉도를 향한 항해가 시작됐다.



포항역 기념사진



포항 단체사진



승선전 단체사진



선상파티



2일 차 (7월16일 목요일) 울릉도 탐방

울릉도 도착(오전 6시) ▶ 조식 ▶ 울릉도 주요 명소 탐방 ▶
중식 산채비빔밥 ▶ 울릉도 주요 명소 탐방 ▶ 석식 오삼불고기 ▶ 숙소 라페루즈

7시간의 항해 끝에 이른 아침 울릉도에 도착했다. 오전 6시 울릉도에 도착해 선착장 인근 식당에서 조식하였다. 원래 계획은 독도 입도였으나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다. 배정된 선박이 전날 독도 탐방을 마치고 울릉도 선착장에 접안하던 중 갑작스러운 조타기 이상이 발생해 선박 방향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부두로 돌진하여 선수 부분이 크게 파손된 것이다. 배는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2일 차 독도 입도 계획은 전면 취소됐다. 인솔팀은 즉시 다른 여행사와 연락을 취해 대체 선박 확보에 나섰다.

산마을 식당에서 울릉도 산채비빔밥으로 중식을 먹은 뒤 2일 차 일정은 전면 울릉도 육상 탐방으로 대체됐다. 오전 8시부터 저녁까지 버스를 타고 울릉도 일주 탐방이 시작했다. 버스 기사님의 입담 좋은 해설이 탐방에 생기를 더해줬다. 거북바위 인근에서는 3년 전 바위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있었다는 에피소드를 들었고, 명소마다 이름이 붙여진 유래와 역사적 배경을 현장에서 들으며 사진을 촬영했다. 관광지마다 역사적 일화와 지명의 유래를 생생하게 설명해 주어 탐방의 깊이를 더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도 울릉도 특유의 청정한 자연과 독특한 지형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다는 평이 많았다. 석식은 다해 식당에서 오삼불고기로 하였으며, 석식을 마치고 울릉도 산 중턱에 자리한 숙소 라페루즈에 입실했다. 저녁 9시 협회 참가자들이 매점에서 맥주와 간식을 사 들고 한자리에 모였다. 이경희 회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평소 쉽게 꺼내기 어려웠던 협회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 공식적인 이사회나 위원회 회의와는 다른, 편안하고 진솔한 분위기의 간담회였다. 협회에 대한 관심이 담긴 대화가 오가는 모습이 필자에게는 행사 내내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였다.





울릉도 단체사진



3일 차 (7월17일 금요일) 대체 선박 확보 및 독도 입도

기상(오전 5시) ▶ 한식뷔페 조식 ▶ 선착장 출발(오전 7시) ▶ 출항(8시 20분) ▶ 독도 입도(오전 10시) ▶
울릉도 귀환(낮 12시) ▶ 중식 따개비 칼국수 ▶ 울릉도 출항 ▶ 포항 도착(오후 5시) ▶ 석식 불고기 ▶ 파인비치 호텔

인솔팀이 전날 밤 다른 여행사와 끈질긴 협의 끝에 독도 입도 자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다른 여행사 자리를 양도받는 방식으로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오전 6시 기상, 숙소에서 한식뷔페로 조식을 먹고 오전 7시 선착장으로 출발했다. 오전 7시 30분 선착장 도착, 8시부터 승선해 8시 20분에 출항했다. 1시간 40분의 항해 끝에 오전 10시 드디어 독도에 입도했다.

독도를 밟는 순간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다. 입도와 출도 시 독도 경비대원들이 도열해 경례로 맞이해주는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다. 경비대와 함께하는 독도 경비대 강아지도 눈길을 끌었다. 80명 전체 단체 사진을 먼저 찍고, 협회 단체 사진도 촬영했으며, 이어 20분간 개인 작품 사진 촬영 시간이 주어졌다.



울릉도 저동항 승선준비

당일 독도는 해무가 짙게 끼어 있어 맑은 날 독도 특유의 짙은 색감이 나오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다. 갈매기들이 바위 위에 줄지어 앉아 있는 풍경은 그 자체로 절경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다가 잔잔해 안전하게 입도하고 출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독도는 연간 100일 남짓만 입도가 허용된다. 함께한 선배 회원들은 “3대의 덕을 쌓아야 독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며 “처음 방문에 바로 입도한 것은 보기 드문 행운”이라고 말했다. 배 사고로 한 번 좌절된 입도가 인솔팀의 기민한 대처로 3일 차에 성사된 것은 이번 탐방 최고의 반전이었다.



독도입도 단체사진



윤종성, 이경희 회장, 유현수, 서호경

오전 10시 20분 승선, 낮 12시 울릉도로 귀환했다. 따개비 칼국수로 중식을 마친 뒤 오후 1시 30분 포항으로 출발했다.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이동할 때는 대형 쾌속선 비즈니스석 2층을 배정받아 쾌적한 여행이 되었다. 3시간여 항해 끝에 오후 5시 포항에 도착, 불고기로 저녁 식사를 하고 파인비치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이날 저녁에도 참가자들이 모여 무사 귀환을 자축하며 협회 발전 간담회를 이어나갔다.



4일 차 (7월18일 토요일) 스페이스워크, 해산

기상(오전 6시 30분) ▶ 조식 전복죽 ▶ 해상 스카이워크 ▶ 스페이스워크 ▶ 포항역 도착(오전 10시 30분) ▶ KTX 탑승(낮 12시) ▶ 해산

오전 6시 30분 기상, 호텔에서 전복죽으로 조식을 먹었다. 오전 8시 해상 스카이워크로 이동했으나 오픈 시간(8시 50분) 이 되지 않아 케이블카는 탑승을 못 하고 주변 산책로를 산책하였다. 이어 환호 스페이스워크 앞으로 이동해 단체 사진을 찍고 여정을 마무리했다. 오전 10시 30분 포항역 도착, 낮 12시 각자 KTX에 탑승하며 해산했다.



단체사진



탐방모습

탐방을 마치며

이번 탐방에서 본 협회 작가들은 80명 전체 참가자 단체 채팅방에서 촬영한 사진을 아낌없이 공유해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큰 감사 인사를 받았다. 탐방 내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진심이었다. 이름난 관광지보다, 맛있는 식사보다, 맥주 한 잔을 나누며 협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방향을 고민하는 대화가 오가는 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다.

필자에게 이번 탐방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독도라는 땅을 실제로 밟아보는 경험은 어떤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해무 속에서 독도 경비대원들이 경계로 맞아주던 모습, 바위 위에 늘어선 갈매기들, 잔잔한 동해의 공기 등, 이 모든 것이 몸에 각인됐다. 필자는 풍경 사진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독도에서 만족스러운 작품을 담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 그동안 인물 사진에만 집중해 온 탓이었다.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반드시 풍경 사진을 제대로 공부하고 다시 찾아가고 싶다. 이번 탐방에서 또 하나 배운 것은 협회 선배들의 진심이었다. 술자리에서 안주 삼아 나온 이야기가 아닌, 진짜 협회를 걱정하고 함께 고민하는 대화였다.

제34대(13-14) 지회장단 몽골 문화·사진 탐방

테를지 국립공원, 이태준선생 기념관, 수흐바타르 광장, 몽골 역사박물관 관람

| 취재 및 사진 이만식 제40대 협회 부회장

제34대(2013~2014) 지회장단(회장 김상열)은 지난 6월30일~7월4일,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몽골 문화 및 사진 탐방을 다녀왔다. 이번 탐방은 사진 촬영을 겸한 문화와 자연 탐방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몽골의 아름다운 풍경과 독특한 생활 방식을 직접 체험하는 값진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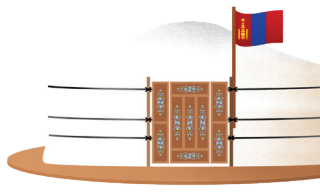
참석자는 김상열 회장(충남), 김대홍 총무(대구), 이재범(서울), 김명환(부산), 정주학(울산), 이봉희(경기), 고철균(강원), 조구성(충북), 남유행(전남), 이만식(경남)이 몽골을 여행하며 3박 5일 동안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박상철(대전), 고창문(제주) 두 회원은 개인 일정으로 동행하지 못하여 회원들의 아쉬움이 컸다.

• 첫째 날 : 울란바타르 도착

인천공항을 떠나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 도착한 지회장단은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첫 방문지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칭기즈 칸 동상’을 찾아 몽골의 웅장한 역사와 마주하며 앞으로 펼쳐질 촬영 여정의 기대감을 높였다.

• 둘째 날 : 초원의 숨결을 담다, 테를지 국립공원과 게르에서의 밤

둘째 날에는 몽골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인 테를지 국립공원을 방문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과 기암괴석, 유유히 풀을 뜯는 야생 동물들이 어우러진 대자연은 사진가들의 창작 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저녁에는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에서 묵으며 이국적인 유목민의 삶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밤이 깊어지자 초원 위로 쏟아질 듯한 별 무리를 함께 촬영하며 깊은 영감을 나누고, 야간 토의 시간에는 사진 예술의 미래와 지역 지회 간 정보 교류, 협회 발전 방향에 대해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뜨거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셋째 날 : 역사의 발자취, 이태준 선생 기념관과 문화 체험

셋째 날은 대한민국과 몽골 양국의 역사적 유대감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몽골의 마지막 황제 어의이자 독립유공자인 이태준 선생 기념관을 방문해 타국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이후 울란바토르 중심부에 위치한 수흐바타르 광장과 몽골 역사박물관을 관람하며 이들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저녁에는 역동적인 몽골 전통 공연을 관람하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문화적 식견을 넓혔다.

• 마지막 날 : 소중한 추억을 안고 귀국

마지막 날, 지회장단은 몽골의 광활한 풍경과 따뜻한 문화를 마음과 카메라에 가득 담은 채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몽골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사진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고 13-14 지회장단 간의 돈독한 정을 확인한 소중한 기회였다.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얻은 예술적 영감과 뜨거웠던 교류의 에너지가 앞으로 협회와 각 지회를 이끌어갈 큰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탐방을 마쳤다.



FOMEX® Studio Flash System

고퀄리티 사진촬영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

선명하다. 정확하다. 변함없다.

사진조명 대표 브랜드 포맥스 Studio Flash System이 새로운 빛의 세계를 열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그대로 사진을 디자인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정확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의 가장 스마트한 선택, Fomex 스트로보! 포맥스가 만들고 세계로 수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한 제품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FOMEX®

전시장 02-511-9904 | 고객센터 02-545-0004 | www.fomex.co.kr
04787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8길 31 풀림테크원 7층

 서울시우수기업
The Excellent Company of Seoul

 글로벌 강소기업
Global Coast Company of Korea

 INNOBIZ
기술혁신영웅소기업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제3회 포맥스 어워드 한국인상사진대전



공모기간 : 2026. 7. 1. ~ 2026. 7.31.

자세한 내용은 회원전용게시판 참조

후원 **FOMEX**[®]

- SPECIAL EVENT -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특별 이벤트!

프로 사진가는 패스포트 포토2를 사용합니다.

Must Have Calibrite Passport Photo 2

20%
OFF

역대 최대
보상 판매

색 바래고 낡은 오래된 컬러차트! 이제 현금처럼 쓰세요.
브랜드 무관, 상태 무관, 종류 무관!

calibrite

ColorChecker

패스포트 포토2

패스포트 듀오

컬러체커 클래식

컬러체커 클래식 미니



☎ 02-713-5340 보상판매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컬러체커 패스포트 포토2의 핵심 기술

✓ 본질의 차이
특수 배합 도료

캘리브라이트 : 특수 배합 도료를 직접 도포하여 실제 사물과 동일한 분광 특성 구현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잉크 분사(인쇄) 방식으로 인해 광원에 따른 색 왜곡 발생

✓ 빛의 완벽한 통제
반사 없는 정확한 컬러

캘리브라이트 : 극도의 무광 마감으로 빛 반사를 차단해 어떤 각도에서도 정확한 컬러 값 제공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종이 재질 특유의 광택과 난반사로 인해 컬러 데이터의 오차가 발생

✓ 밀도의 깊이
빈틈없이 완벽한 단색

캘리브라이트 : 고밀도 단일 색상 층을 형성하여 노이즈 없는 완벽한 컬러 값 제공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미세한 잉크망점과 노즐의 잉크 혼합 현상으로 컬러 값 신뢰도 낮음

✓ 시간의 증명
외부 요인에 강한 특수 도료

캘리브라이트 : 내광성이 뛰어난 특수 배합 도료로 자외선과 외부노출에 색상 유지력이 높음
출력으로 패치를 제작한 제품은 잉크와 종이의 한계로 인해 자외선이나 공기 접촉에 취약

calibrite

BEST 베스트

캘리브라이트 컬러체커

패스포트 포토2

1. 산업표준 24색클래식 패치 타겟
2. 크리에이티브 인핸스먼트 타겟
3. 그레이 밸런스 타겟
4. 화이트 밸런스 타겟
5. 충격과 오염 방지하는 케이스
6. 전용 소프트웨어 무료 제공





SIGMA

ART
17-40mm F1.8 DC



대한민국 사진·영상장비 대표기업

본사_서울시 중구 수표로 22-12 세기빌딩 T.02.3668-3114(대) | F.02.742-3387
브랜즈샵_T.02.3668-3109,3181 | F.02.2279-0887 광고·홍보_T.02.3668-3167



www.saeki.co.kr



고요의 반대편

빛과 어둠이 맞닿은 얼굴은 침묵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조용히 나아간다.
고요 너머에 기다리고 있을 마음과 시간을 표현했다.



작가소개 류수민 작가

現 감동사진관 대표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자격위원회 위원

2016년 Professional Photographers of Korea 작품상 수상
2015년 PPA International Photographic Competition Silver Medal
2015년 대한민국 스타예술대상 <사진부문 수상>
2014년 제4회 대한민국 다문화예술대상 사진작가부문대상
2013년 월간문학세계 시부문 신인문학상 수상
2012년 대한민국다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상 수상



연주되지 않은 밤

연주가 멈춘 피아노 앞, 인물은 프레임 너머를 바라본다.
빛이 얼굴의 일부를 드러내고, 남겨진 감정은 어둠 속에 머문다.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더 선명해지는 마음의 잔향을 담았다.

류수민 작가



사랑의 선율(Melody of Love)

오카리나의 순박한 선율 위에 연주자의 진솔한 미소를 덧입히다.

어둠을 가르는 부드러운 빛은 주름진 손마디에 깃든 삶의 열정과 사랑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음악을 통해 세상과 교감하는 노년의 찬란한 환희를 손가락 하트라는 위트 있는 찰나에 담아냈다.



작가소개 박용호 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지회 고문

現 파스텔스튜디오 대표



자유를 연주하다(Playing Freedom)

오랜 세월을 품은 색소폰의 중후한 금빛 울림을 연주자의 깊이 있는 미소로 승화시키다.

빈티지한 카우보이 모자와 화려한 에스닉 패턴의 셔츠가 만들어내는

세련된 부조화 속에 노년의 자유로운 영혼을 투영하였다.

박용호 작가



책과 함께 꾸는 꿈

칼뱅의 구약 주석, 과학과 미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차곡차곡 쌓인 고서(古書) 더미에 포근히 기대어, 흰 포대기에 감싸인 신생아가 세상 모르게 꿈나라에 빠져 있다. 인류가 쌓아온 방대한 지식과 지혜 위에 기댄 채 잠든 이 작은 생명의 모습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시적으로 상징한다. 세피아빛 따뜻한 조명 아래 아이의 보드라운 뺨과 오밀조밀한 발가락이 더없이 평화롭게 빛나며, 과거와 미래가 한 프레임 안에서 조용히 만난다.



작가소개 박응태 작가

PPA MASTER PHOTOGRAPHER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충남지회 예산지부장

現 예산중앙스튜디오 대표



白中紅

백중홍-흰 세상 속의 붉음
붉은 한복 한 점이 흑백의 세상을 압도하듯,
우리의 전통은 시대를 초월하여 빛난다.

우리의 한복에 담긴 어머니의 삶을 그려보는 작업입니다. 몇 장의 사진으로 당신의 삶을 다 그릴 수는 없겠지만
잠시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나와 세상을 지키고 만들었던 모든 어머니의 품에 초대합니다.



작가소개 이정휘 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수원시명예지부장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위원회 이사
現수원 화성스튜디오 대표



환한 미소, 눈부신 하루

깊은 검정 배경을 캔버스 삼아 환하게 피어오르는 미소가 화면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몸을 살짝 틀어 카메라를 향해 자연스럽게 시선을 건네는 인물의 자태에서 당당함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지며, 측면에서 부드럽게 감싸는 조명이 피부결과 머릿결을 따라 은은한 빛을 만들어낸다. 시스루 소재 의상의 섬세한 질감이 인물의 개성을 한층 돋보이게 하며, 청춘이 지닌 빛나는 순간을 스튜디오 안에서 온전히 포착해낸 작품이다.

chung
PHOTOSTUDIO

작가소개 최병희 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홍보위원
現 청스튜디오 대표



촬영부터 비대면 셀렉, 컨펌, 추가수익까지

모두스쿨 하나로 완벽하게



스마트촬영 & 자동네이밍

- QR보드 or 태블릿 촬영으로 데이터에 학생 정보 매칭
- 파일명 노가다 탈출! 파일명 변환 1초 컷
- 엑셀 명렬표 기반 생성으로 수작업 오타 완벽 방지



대용량 일괄 업로드 & 자동 분류

- NAS 연동으로 수천 장의 고화질 사진도 한 번에 일괄 업로드
- 학교·학생별 자동 폴더 분류로 이메일/웹하드보다 압도적 편리함
- 번거로운 수동 작업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데이터 정리 끝



비대면 셀렉 & 컨펌

- 학생별 계정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셀렉
- 스튜디오, 학교가 실시간으로 결과 공유 및 확인가능
- 수정 요청 및 소통을 위한 메모 기능 탑재



추가수익

학부모 원본판매

- 민원·결제·CS 모두스쿨 전담! 작가님은 정산만 신청
- 판매 여부 및 금액 자율 설정 (학부모 대상 원본 판매)
- 판매 수익금의 70% 정산으로 확실한 추가 매출 달성



학교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완벽 준수

개별 보안 계정 접속 | 데이터 암호화 | 저작권 보호용 자동 워터마크 |
시즌 완료 후 데이터 즉시 파기

AI 이미지 보호 및 딥페이크 오염 방지 기술

동적 메타데이터 워터마킹

사진업로드시 사이트 정보를
메타데이터에 삽입하여
사진의 정당성을 증명합니다.

자동 워터마크 설정 기능

무단 유출된 파일 경로를 추적하고
캡처를 방어하여 원본 가치를 지킵니다.



신규 신청 특별 혜택! 'QR 촬영 보드판' 1개 무상 증정

문의 : 파란소프트 051-624-5075



서울지회

서울특별시지회 7월 월례회의 및 교육

글쓰기·AI 활용부터 온라인 마케팅 실전
강의로 알차게 채워

취재 한장훈 서울지회 사무국장
사진 주용철 홍보위원



서울특별시지회(지회장 신건정)는 지난 7월 10일 서울지회 월례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신건정 지회장의 인사말과 이경희 협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한장훈 사무국장과 주용철 홍보위원이 강의를 맡아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신건정 지회장은 폭염 속에도 자리를 함께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を 전하며, 어려운 시장 환경일수록 공부하고 준비하는 지회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지회가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회원들의 실질적인 생존과 성장을 돕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경희 회장은 격려사에서 “사진관 업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변화를 먼저 읽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교육 내용을 사진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해 보도록 독려했다. 월례회와 실무 교육을 결합하는 서울지회의 운영 방식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학습 문화가 전국 지회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장훈 사무국장은 사진관 운영에서 온라인 글쓰기와 인공지능(AI) 도구 활용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핵심은 꾸준함이었다. “블로그나 카페 운영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꾸준하지 못해서”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미리 10~30개의 원고를 뽑아두는 방법을 제안했다. 네이버 예약과 리뷰 관리 전략과 인공지능(AI) 도구 비교도 이루어졌다. 제미니는 구글·유튜브 연동과 최신 정보 검색에, 클로드는 글 다듬기와 정리에, 챗GPT는 범용적 활용에 강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용도에 맞게 골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용철 홍보위원은 인천 논현동에서 인천 최초이자 전국 10개뿐인 ‘백년가게’ 사진관을 운영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관리 전략을 강의했다. 구글 리뷰 답글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뷰에 성실히 답글을 달면 구글이 긍정 평가 메일을 발송할 만큼 응답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별점 1개짜리 리뷰에도 장문의 성의 있는 답글을 다는 것이 잠재 고객에게 신뢰를 준다고 강조했다.

강의는 “소식, 예약, 톡톡 이 세 가지만이라도 먼저 챙겨라.”라는 말로 마무리됐으며, 다음 회차에는 유튜브 콘텐츠 60일 치 작성 방법을 예고 하였다. 두 사람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지회 회원들은 강의 내내 노트를 꺼내 들고 메모하는 집중력 높은 모습을 보였다.



이경희 협회장 격려사



서울지회장 신건정



한장훈 강사



주용철 강사

인천지회

2026 제39회 인천광역시지회 하계세미나

EVOTO 강의·사진진흥법 강의 및 레크레이션 열려

| 취재 및 사진 홍춘석 인천지회 주재기자

인천지회(지회장 김학규)는 지난 7월 6일 인천 서구 서곶로에 소재한 청양골에서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인천광역시지회 하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아침에 장마가 시작되는 기상예보가 있었지만, 인천지회 회원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듯 접수 시간 전부터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회원들이 속속 도착하여 임원진들과 함께 세미나를 준비하였다.

개강식에는 이경희 회장, 김천식 수석부회장, 정태민 부회장, 김동한 총무위원장, 한장훈 홍보위원장, 이해승 복지정책위원장, 성덕현 홍보이사, 이승호 대외협력이사, 신건정 서울지회장, 이정주 경기지회장, 구재용 인천서해구청장, 임웅재 인천앨범협동조합이사장이 참석하였다.

오전 9시 30분 회원접수, 10시 EVOTO 새로운 기능 강의, 11시 30분 정기봉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한 개강식은 성덕현 명예 인천지회장이 환영사와 내빈소개를 하였다. 인천지회 김학규 지회장이 개회선언, 국민의례, 정태민 부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박경호 지부장의 회원윤리강령 낭독 후 인천지회 회원들의 시상식이 이어졌다. 협회장 표창은 김현우 인천부지회장, 정기봉 인천사무국장이 수상하였다. 지회장 표창은 강병열(태양사진관), 구



국민의례

재규(세계사진스튜디오), 국승호(영포토스튜디오), 김길호(뉴선명스튜디오), 김민재(지한스튜디오), 김주원(아기사랑스튜디오), 류병열(예원스튜디오), 박우윤(베이비포토), 박종학(제일스튜디오), 오광진(뉴아폴로스튜디오), 최광남(역전스튜디오) 회원이 수상하였다. 이어 김학규 지회장은 임웅재 인천앨범조합이사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김학규 인천지회장의 대회사, 이경희 회장 격려사, 임웅재 인천앨범협동조합이사장, 신건정 서울지회장, 이정주 경기지회장, 구재용 인천서해구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개강식을 마치고 공지사항 전달과 단체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만찬을 하였다.

오후 1시에는 정태민 부회장의 사진진흥법 대책 강의와 현안을 심도 있게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졌으며, 2시부터는 레크레이션과 행운권 추첨으로 참석한 회원들 모두 즐거운 게임을 하였다. 참석한 회원 모두에게 푸짐한 상품을 증정하며 회원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김학규 지회장의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행사가 종료되었다. 세미나가 종료 후 인천지회 회원은 함께 정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김학규 지회장은 세미나를 위해 수고한 임원과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세미나를 마쳤다.



www.kappa.co.kr

강원지회

2026 제32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 연수대회

정부지원사업 및 인공지능(AI) 활용 강의 열려

취재 김인수 강원지회 사무국장
촬영 민용기 강원지회 부지회장



이경희 회장 축사



김경식 강원지회장 개회선언



국민의례



협회장 표창 및 위촉장



지회장 표창



강사위촉장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김경식)는 지난 7월 1일 고인돌 캠핑장(홍천 소재)에서 1박 2일로 2026년 제32회 강원지회 연수세미나를 개최했다. 야외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실무 강의와 대전 캐논카메라(이승호 카메라 대학병원 대표)가 참가하여 클리닝 서비스와 선물 증정을 하여 강원지회 회원에게 뜻깊은 자리가 진행되었다.

김인수 강원지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한 개강식에는 제40대 회장 이경희, 정태민 부회장, 김동한 총무위원장, 민대인 정책자문위원, 한장훈 홍보위원장, 박수만 사회문화이사, 이승호 대외협력이사 등 협회 임원과 김광수 강원앨범조합이사가 참석하였다. 강원지회는 김경식 강원지회장과 김승배 명예지회장, 민용기 부지회장, 윤재구 고문(협회자문), 홍병섭 고문(협회자문), 권원한 고문(협회자문)을 비롯한 지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외빈 소개는 김승배 명예지회장이 맡았으며, 개회 선언은 김경식 지회장이 선언했다. 국민의례를 마친 뒤 민용기 강원지회 부지회장이 회원 윤리강령을 낭독하였으며, 박수만 강원지회 고문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시상식으로는 이경희 회장이 홍병섭 자문에게 정책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협회장 표창은 동해지부 강대오 신화스튜디오 대표가 수여 받았다. 지회장 표창으로는 모범지부 태백지부 백택근 지부장, 모범회원은 원주지부 이석재 티아라스튜디오 대표에게 각각 수여됐다. 축사는 이경희 회장, 정태민 부회장, 김광수 강원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이사장, 신건정 서울지회장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원지회의 활동을 격려하고 협회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식전 행사로는 두 강사의 강의를 진행했다. 한장훈 홍보위원장은 '정부지원사업의 종류와 신청 방법'을 주제로 사진관 운영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서울지회 부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강사는 '포토샵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진보정'을 주제로 최신 보정 기법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개강식을 마치고 만찬에서는 협회 임원과 강원지회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지회

제48회 경기도지회 연수대회

정태민 강사·김소희 강사의 AI 강의 및 촬영대회 진행

| 취재 및 사진 김영철 경기지회 주재기자



정태민 부회장 시강의



이경희 협회장



이정주 경기지회장

경기도지회(지회장 이정주)는 지난 7월 11일(토요일) 신안산대학교(안산시 소재) 목양관에서 많은 내외빈과 회원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오전 행사는 정태민(협회 부회장)강강사 “AI로 사진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주제의 강의가 진행 되었다. 이어서 김소희 한국강사진협회이사의 “AI 시대 사진산업의 새로운 미래준비”의 강의가 진행 되었다. AI강의는 현장 실습위주로 진행이 되었으며, 강의를 통해 새로운 변화에 대한 흐름을 느꼈다.

강의를 마치고 중식(신안산대 구내식당)후 김남기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되었으며 최진선 명예 지회장의 내외빈 소개, 손무수 경기도지회 고문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정주 경기도지회장은 대회사에서 연수 개요를 소개한 뒤 이번 연수가 지식을 채우는 자리를 넘어 동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였다.

이경희 협회장은 격려사에서 내실 있는 연수대회를 준비한 집행부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 하며 연수대회는 급변하는 시디지털 시대 속에서 우리 프로사진작가들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박수열 경기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이사장, 자매지회인 안성현 울산광역시 지회장 축사가 이어졌으며 이경희 협회장, 안성현 울산지회장, 인천 김학규 지회장, 강원 김경식 지회장, 박수열 경기앨범조합이사장, 서울지회, 민성식 사우회 회장의 발전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협회장 표창으로는 이정휘(수원), 김종호(성남) 회원이 지회장 표창으로는 복기보(오평), 전일우(수원), 박성훈(의정부) 회원이 수상하였다. 2025 경기지회 촬영대회 시상에서는 박남국 회원의 금상 수상을 포함 12명의 시상식이 있었다. 촬영대회는 이정휘 작가의 연출과 지도하에 실내 한복모델 촬영과 함께 경품권 추첨을 마지막으로 연수대회를 마무리하였다.



2026 경기지회 촬영대회

· 심사위원장 윤종성

· 심사위원 이해승, 이성환

· 심 사 일 2026년 7월 3일(금)

· 장 소 사진회관 회의실

입상(선)명	성 명	상 호	제 목
금 상	박남국	청스튜디오	꽃밭에서
은 상	김종호	매직스튜디오	타인
동 상	채금수	상록스튜디오	응시
	이병덕	파스텔스튜디오	응시
가 작	이 흥	홍스튜디오	표정
	최문성	아이스튜디오	시선
	박용식	이이엘스튜디오	여인
입 선	이창준	행복한스튜디오	생각
	김종호	매직스튜디오	연출
	김남기	포토프로포즈	미소
	박남기	청스튜디오	흑백의아름다움
	최행완	라이프스튜디오	미소



심사모습



금상

2026 경기지회 촬영대회
청스튜디오 박남국



은상

2026 경기지회 촬영대회
김종호 매직스튜디오



동상

2026 경기지회 촬영대회
상록스튜디오 채금수



동상

2026 경기지회 촬영대회
파스텔스튜디오 이병덕

충북지회

2026 충북지회 청주시부 6월 월례회

에이블스튜디오 김영석 회원 탐방 및 교육

취재 조인환 청주시지부 총무
사진 문호영 충청북도 지회장



청주시지부(김영봉 청주시 지부장)는 지난 6월 24일 청주시지부의 월례회 및 스튜디오 탐방이 있었다. 이날 자리는 장광동 협회 감사, 오호근 협회 자문, 연원석 교육자격이사, 문호영 충북지회장, 김영봉 청주시 지부장, 조인환 청주시지부 총무, 김영석 교육자격위원, 우예환(로또), 염동진(진포도), 신입회원으로 신성일(성일스튜디오), 이인웅(금성사진관) 회원이 함께하였다. 김영석 회원은 지속광의 사용법과 운영노하우를 교육하여 청주시지부 회원들과 정보교류 및 교육을 통해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봉 청주시 지부장

김영석 회원은 멀티플렉스 사진을 표방하며, 6개 브랜드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 증명·취업 전문의 에이블스튜디오를 시작으로, 우정·단체·셀프 촬영의 포토플레이, 가족·프로필·세미웨딩 전문의 에이블룸&WEME, 바디프로필 전문의 애블바디, 필름 현상 전문의 화양연화, 그리고 1타임 1팀 예약제 프리미엄 스튜디오인 에이블위드유까지 각각 독립된 공간과 독자적인 콘셉트를 갖추고 있다.

김영석 회원에게 ‘좋은 사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 사람다움’이 담겨야 한다고 하며,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다. 가족사진은 10년 뒤에 꺼내봤을 때 진짜 울컥하게 만드는 사진이며, 증명사진은 과도한 보정보다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수정과 연출을 하고, 프로필사진은 촬영 중 대화를 많이 나누어 자연스러운 표정을 잡는다고 하였다.

고객이 에이블스튜디오를 찾는 이유는 믿을 수 있는 사진관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을 찍는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고객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청주에서 “사진 찍으러 간다”라고 하면 에이블스튜디오가 떠오르게 하고, 평생 고객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월례회



교육모습



에이블스튜디오 촬영장



포토플레이 촬영세트장



에이블위드유

우리가

희망입니다.



**드림라보/인디고/잉크젯/은염/대형출력
특수출력/샤인메탈/앨범/포토북/액자제작**

서비스전문기업



포토천지

(구,천지이미징)

본 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29 번지 / TEL : 063-712-5500, 5555
영업본부장 유창봉 010-6382-9184 / 새만금지사장 남영우 010-4384-0505
대표사이트 www.cjdpj.kr / 온라인사이트 www.cjphoto.kr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4번길 9 / TEL : 062-222-6700
영업이사 김형근 010-9222-7333

천안 호두기름, 원재료와 압착 방식 품질 차별화

우리 회원이 만든 진짜 먹거리

임흥철 전 이사 인터뷰

|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충남 천안지역은 오랜 기간 호두와 관련된 지역 이미지가 형성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단순 가공식품을 넘어 호두를 활용한 건강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에서 호두기름 생산과 관련된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임흥철 전 이사는 “호두는 지역을 대표하는 원재료 가운데 하나”라며 “최근에는 건강 중심 식문화가 확산되면서 호두기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과 호두, 지역 기반 이미지 형성

천안은 오래전부터 호두 관련 식문화가 발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역 특산물과 연계된 다양한 식품이 형성되며 ‘호두’라는 상징성이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임흥철 전 이사는 “천안은 자연스럽게 호두와 연결되는 지역 이미지가 있다”며 “지역 기반 원재료를 활용한 식문화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두기름, 원재료와 압착 방식 중요

호두기름은 일반 식용유와 달리 원재료 상태와 압착 방식이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전 이사는 “좋은 호두기름은 원재료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며 “호두 자체의 품질이 안정적이어야 향과 맛도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압착 과정 역시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그는 “압착 방식에 따라 향과 풍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리한 가공보다는 원재료 특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 중심 식문화 속 관심 증가

최근 소비자들의 식생활 변화와 함께 건강 중심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흥철 전 이사는 “기름은 매일 사용하는 식재료인





광덕산 청정지역토종 호두기름
1병 ~30.000원
T010.5408.1936



만큼 원재료와 생산 과정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에는 식물성 원료 기반 기름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호두기름은 고소한 풍미와 활용성 측면에서 다양한 식문화와 연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샐러드·나물류 등 다양한 활용 가능

호두기름은 일반 조리용 외에도 샐러드, 나물무침, 비빔류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이사는 “강한 조리보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방식에 잘 어울린다”며 “샐러드나 나물류처럼 담백한 음식과 조합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건강식 위주의 식단과 함께 찾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먹거리 선택 기준 변화

최근 먹거리 시장에서는 가격 중심 소비보다 생산 과정과 원재료 중심 소비가 확대되는 흐름도 확인되고 있다. 임홍철 전 이사는 “먹거리는 결국 무엇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생산 과정과 원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 식재료일수록 더 꼼꼼하게 선택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기반 지역 먹거리 연결 필요성 제기

임 전 이사는 협회 내부 소비 구조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회원들이 생산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를 협회 안에서 먼저 경험하고 소비하는 흐름이 필요하다”며 “이는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신뢰 기반 공동체 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 호두기름, 건강 식문화 기반 확장 가능성

천안 호두기름은 지역 특성과 건강 중심 식문화 흐름이 결합되며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식재료로 분석된다. 특히 원재료와 생산 방식 중심 소비 문화가 확산될 경우 지속적인 시장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임홍철 전 이사는 “좋은 기름은 결국 식탁의 기본을 결정하는 요소”라며 “정직한 원재료와 생산 과정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정리

천안지역 사례는 지역 먹거리가 단순 판매를 넘어 건강 중심 식문화와 생산 신뢰 기반으로 소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협회 회원 간 신뢰 기반 소비 구조가 형성될 경우,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유통 모델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영상 장비의 모든 것

가나사진기구

스튜디오 구축부터 장비 설치, 사후 관리까지
촬영 환경 구축 토탈 솔루션



사진관 및 스튜디오
창업 제품 판매



사진조명 & 영상조명
설치 전문



전동 배경, 크로마키
설치 전문



사진 기자재
수리 전문



02. 3675. 6698

gana2000co@hanmail.net | www.gana2000.c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9길 21(돈의동) 2층 가나종합사진기구상사



졸업은 끝이 아니라 추억이 계속되는 시작입니다

종이 앨범의 감성과
디지털의 편리함을 하나로

DIGITAL GRADUATION ALBUM



e.ALBUM

e.앨범·맞춤형 졸업사진 셀렉 APP

학생들의 웃음, 친구들과의 순간, 그리고 학교의 기억까지.
이제 졸업 앨범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다시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추억”**이 됩니다.



모바일 디지털 앨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감상



졸업 영상 탑재

졸업식, 학교 행사 등
영상 콘텐츠로
생생한 추억을



학급 커뮤니티 기능

졸업 후에도
친구들과 소통하며
추억을 이어가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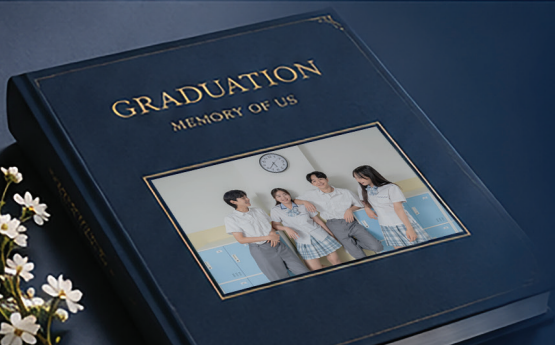
사진 선택 연동

편리한 사진 선택 시스템
연동으로 쉽고 빠르게
앨범 제작



안전한 보안 시스템

캡처 방지와 같은
안전한 보안 기술로
소중한 추억을 보호



PRINT × DIGITAL × MEMORY

인쇄의 가치와 디지털 경험을 함께 제공합니다.



학교는 더 편리하게

- 인쇄 + 디지털 통합 운영
- 학생 만족도 향상
- 최신 디지털 트렌드 대응
- 학교 브랜드 이미지 강화



학생은 더 즐겁게

-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
- 영상과 함께 생생한 추억
- 친구들과 지속적인 연결

MEDIA

주식회사 미디어피앤피



&



40년 이상의 사진·인쇄 제작 경험과
최신 디지털 콘텐츠 기술이 만나
학교와 학생 모두를 위한
새로운 졸업 앨범 문화를 만듭니다.



40년 이상의
제작 경험



전국 학교
제작 경험 보유



고객 만족도
높은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www.mediapnp.co.kr



정중동(正中動)의 절경

충북 단양의 명승(名勝) 도담삼봉(嶋潭三峰)을 드론으로 부감 촬영한 작품으로, 남한강 한가운데 우뚝 솟은 세 개의 기암이 쪽빛 강물 위에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다. 중앙 봉우리 위에 세워진 전통 정자(亭子)가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채 여름 햇살을 받으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노란 수상 레저보트가 삼봉을 크게 휘감으며 그린 하얀 포말의 궤적이 화면에 역동적인 생동감을 더한다. 유구한 자연 유산과 현대적 여가 문화가 한 프레임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며 한여름 단양의 활기찬 풍경을 압축적으로 담아냈다.



작가소개 권혁만 작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 및 감사패 수상(2025년)
 행정안전부 제9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울산광역시 대표(전)
 울산광역시 제12기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제10회 전국드론사진공모전 우수상 수상(2025년)
 2026년 창원공원묘원 전국사진공모전 작품상 수상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자문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울산광역시지회 고문
 現 모델스튜디오 대표

晩秋溪流

(만추계류 - 늦가을 계곡의 흐름)

심산유곡(深山幽谷) 깊숙이 자리한 계류(溪流)가 이끼 낀 바위 사이를 굽이쳐 흐르며 청아한 물소리를 빚어낸다. 녹태(綠苔)로 뒤덮인 바위들이 계곡 양편을 단단히 에워싸고, 그 틈새로 비단결 같은 물줄기가 단계를 이루며 흘러내리는 모습이 장노출 기법으로 부드럽게 포착되었다. 바위 위에 점점이 얹힌 붉고 노란 낙엽들이 녹색과 백색의 화면 속에 만추(晩秋)의 정취를 은은히 더하며, 생동하는 물과 고요히 자리한 이끼의 대비 속에 자연의 유구한 순환을 담아낸다.


 秋
風
集
VOL. 583

작가소개 김갑수 작가

現 포토매니아 대표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現 참빛사진영상 대표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부회장 역임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이사 역임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자문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녹차

보성하면 역시 녹차를 빼놓을 수 없죠!
 사진 속 햇살을 머금은 연둣빛 차잎이 정말 싱그럽습니다.
 5월의 보성은 산 위의 분홍빛 철쭉뿐만 아니라,
 발아래 펼쳐진 초록빛 차밭 덕분에 눈이 참 즐거운 시기입니다.
 지금 시즌의 보성 녹차밭은 곡우를 지나
 차잎을 수확하는 '채다' 시기와 맞물려 가장 생동감이 넘칩니다.



작가소개 김현호 작가

한울문학 시 부문 등단(2007년) 전남한울문학
 보성문학 회원
 전남문학 영상분과위원장
 보성예총 수석부회장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개인전 6회 「보성의 풍광」 「차밭에 머물다 2」
 시화전 「봄View, 시와 사진의 만남」
 시집 「차꽃 피면 만나리」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現 참빛사진영상 대표



전남 보성 녹차밭 풍경

이 사진은 굽이치는 능선 위로 정갈하게 이어진 차밭의 선들이 리듬감을 만들며, 자연과 인간의 노동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강한 햇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난 녹차밭의 초록은 생명력과 계절의 충만함을 상징하고, 뒤편의 숲과 하늘은 공간에 깊이와 고요함을 더합니다. 특히 반복되는 곡선의 패턴은 단순한 농경지를 넘어 하나의 추상적 조형 언어처럼 보이며, 관람자로 하여금 시선의 흐름을 따라 자연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게 합니다. 화면 중앙의 작은 사람들은 광활한 자연 앞 인간 존재의 미세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 풍경이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삶의 터전임을 암시합니다. 작가는 보성 녹차밭의 풍경을 통해 '질서와 순환', 그리고 자연이 만들어내는 치유의 감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차밭의 선은 반복되는 일상과 시간을 상징하지만, 그 안에 깃든 빛과 바람의 변화는 순간마다 다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작품은 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잊고 있던 평온과 여유를 되찾게 하는 시각적 사색의 공간입니다.

작가소개 서현호 작가

2012 한국예총 사진인의상 수상
한국사진작가협회 추천작가
“인생은 자유다” 서현호사진전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작가제도 지도위원





물굽이 도는 도시, 노을빛 파노라마

해 질 무렵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을 드론으로 부감(俯瞰) 촬영한 광각 파노라마 작품이다. 하늘 전체에 걸쳐 번지는 진홍빛과 주황빛 노을이 구름층 사이로 커를 이루며, 도시 전체를 따뜻한 색조로 물들인다.

화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강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도심과 외곽 농경지를 자연스럽게 구분 짓는 동시에, 시선을 화면 좌측 도심부에서 우측 비닐하우스 단지까지 자연스럽게 이끄는 시각적 축으로 기능한다. 강변에 조성된 공원의 연못은 노을빛을 그대로 반사하며 화면 중앙에 강렬한 색의 포인트를 만들어낸다.



작가소개 이용일 작가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순천시 지부장 역임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전라남도 지회장 역임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국제교류 이사 역임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문화원 이사

前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제39대 협회 감사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제0298호 초대작가
現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협회 자문

침묵하는 암초

장노출(長露出) 기법으로 포착한 해안 암초 지대로, 파도가 바위를 휘감으며 흘러내리는 물결이 부드러운 비단 것처럼 표현되어 거친 암석의 질감과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날카롭게 솟은 기암(奇巖)들이 화면 중앙을 대각선으로 가르며 자리 잡고, 그 사이를 채운 청백색 포말이 바위의 적갈색·회색 톤과 맞부딪히며 화면에 역동적인 긴장감을 부여한다. 수백만 년의 세월이 빚어낸 암초의 단단함과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의 부드러움이 한 프레임 안에서 공존하며, 자연이 지닌 대비의 아름다움을 조용히 웅변한다.



작가소개 이희춘 작가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심사위원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40대 작가제도위원 (현)
現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경기지회 부지회장 (현)
現 미래포토 대표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성남시지부장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38대 작가제도위원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39대 작가제도위원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초대작가 제0264호
前 (사) 한국프로사진협회 촬영지도위원



EOS R SYSTEM

혁신과 소통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55년 전통의 2대로 내려온 카메라 병원장



EOS RP EOS R EOS Ra

대전/세종/충청 캐논 공식 총판



온라인 바로 주문 서비스
<https://smartstore.naver.com/daejeoncanon>
 ← 스토어 바로 가기 QR 스캔 !!!



대전/세종/충청 총판

고객 감사 EVENT!!!



대전/세종/충청 총판

오후 2시 30분까지 주문 및 결제 시 당일발송가능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일자에 맞춰 상품이 발송됩니다.

대전/세종/충청 총판

Canon

(주)카메라대학병원

매장: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8-1(은행동 45-14)
 주차: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7-1(대원주차장)
 Tel : 042)254-1110 E-mail : cameradr@hanmail.net



CEO 이 승 호



사단
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Godox X Fotopro®

온라인 최저가보다 더! 다시 없을

현장단독특가

[8 월 , 용 평 에 서 만 나 요]



GALI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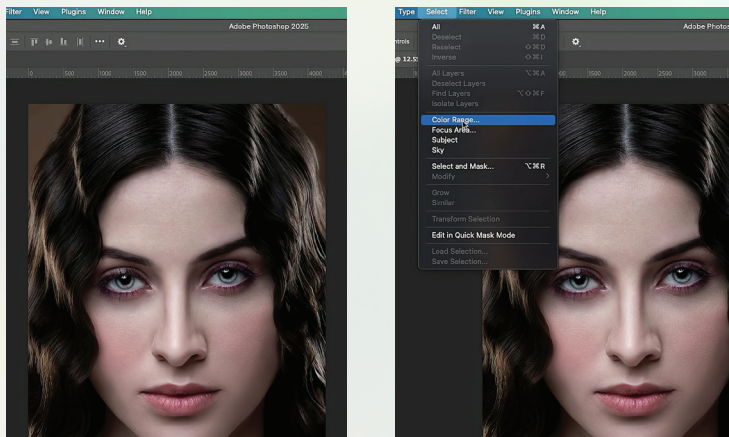
Photoshop(스킨톤): 건강피부톤 보정

Color Range와 Solid Color 레이어를 활용한 초스피드 스킨톤 업그레이드

| 글 조형준 작가

인물 사진을 찍다 보면 조명이나 환경에 따라 피부가 지나치게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표현되어 고만될 때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색감을 만지다 보면 배경까지 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의 Color Range 기능을 이용해 피부 영역만 정교하게 선택하고, 자연스러운 온기를 더하는 실전 비법을 소개합니다.

01 피부 영역만 똑똑하게 선택하기



① 사진 불러오기 및 레이어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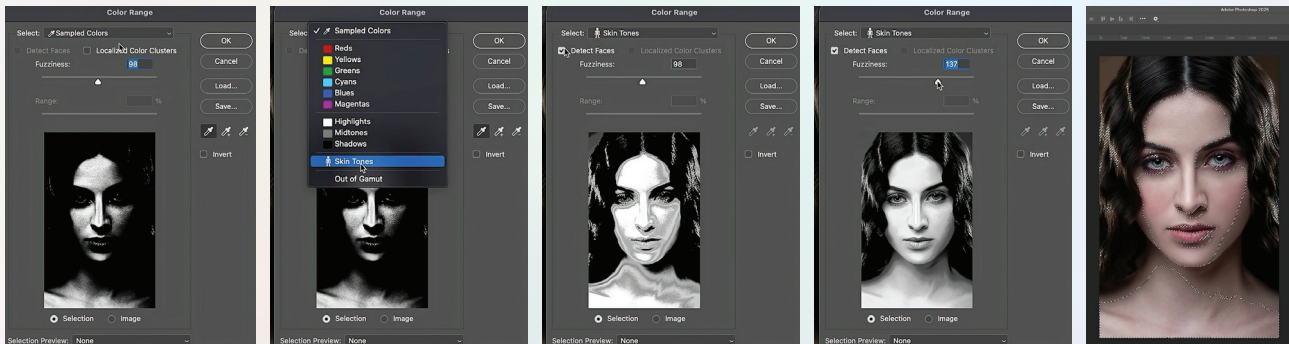
· 보정할 사진을 열고 'Ctrl + J'를 눌러 레이어를 복사합니다.

② Color Range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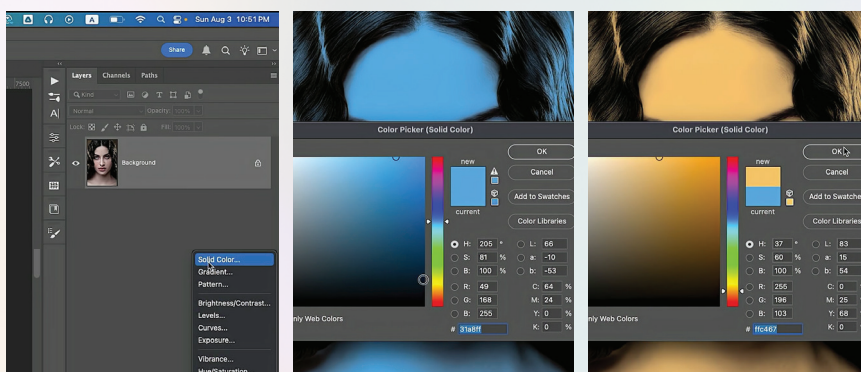
· 상단 메뉴에서 [Select] ▶ [Color Range...]를 클릭합니다.

③ Skin Tones 선택 및 얼굴 인식

- ③-1 대화 상자의 Select 드롭다운 메뉴에서 [Skin Tones]를 선택합니다.
- ③-2 [Detect Faces] 항목에 체크하면 AI가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더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 ③-3 Fuzziness(허용치) 슬라이더를 조절해 피부 영역만 하얗게 표시되도록 정밀하게 다듬은 후 확인(OK)을 누릅니다.



02 레이어 블렌딩으로 피부에 온기 넣기 강좌 핵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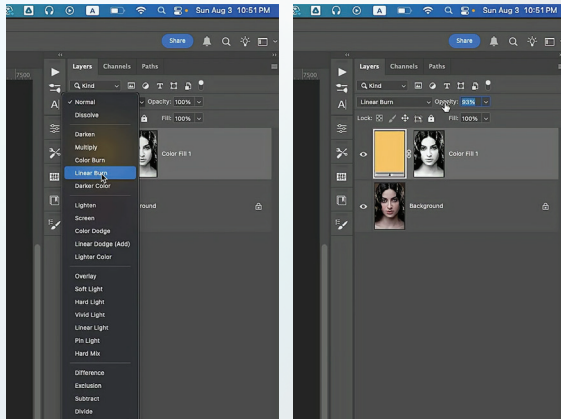
① Solid Color 조정 레이어 추가

· 선택 영역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하단의 [New Adjustment Layer] 아이콘을 클릭하고 [Solid Color...]를 선택합니다.

② 따뜻한 피부색 선택

· 컬러 피커 창이 뜨면 너무 진하지 않은, 따뜻한 느낌의 웜톤(베이지나 연한 오렌지 계열)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03 블렌딩 모드 변경 : Linear B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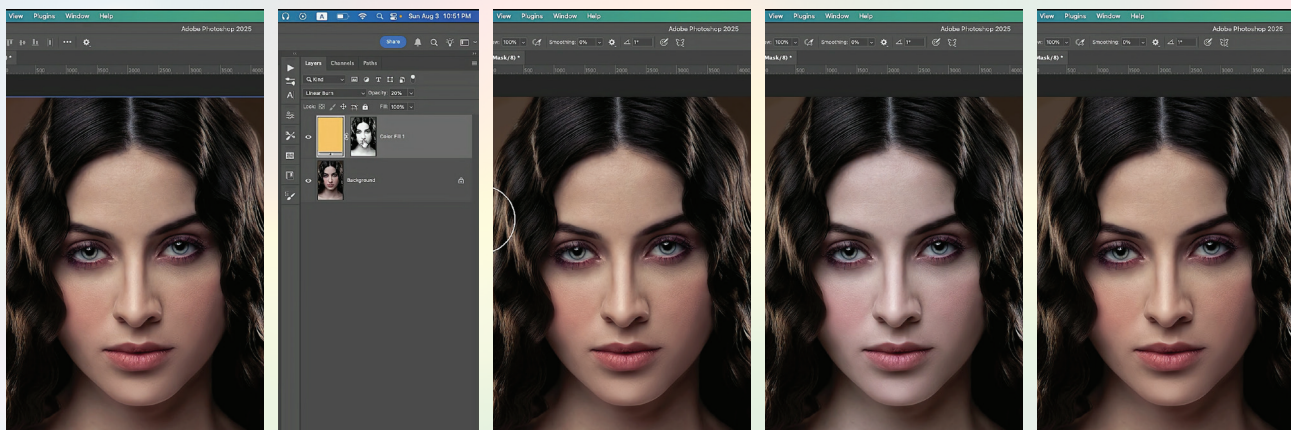
1 블렌딩 모드 변경

- 레이어 패널에서 생성된 Solid Color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Linear Burn]으로 변경합니다. 처음에는 색이 너무 진해 보일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2 Opacity(불투명도) 조절

- 레이어의 Opacity 값을 10~30% 사이로 낮춰가며 피부에 자연스럽게 색이 스며들도록 조정합니다. 사진의 분위기에 맞춰 본인의 감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04 디테일 수정 및 최종 완성



1 마스크로 불필요한 영역 지우기

- 눈동자나 머리카락 등 피부 외에 색이 묻어난 곳이 있다면 마스크를 활용합니다.

- Solid Color 레이어의 마스크 썸네일을 클릭합니다.
- 검은색 브러시를 선택하고 효과가 들어가지 않아야 할 부분을 부드럽게 칠해줍니다.

2 Before & After 확인

- Before: 차갑고 생기 없어 보이던 피부톤
- After: 건강한血色과 따뜻함이 감도는 세련된 인물 사진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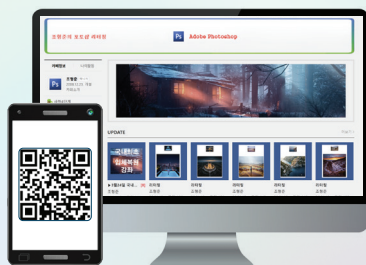
피부톤 보정의 핵심은 과유불급입니다. Color Range로 선택할 때 피부 외 영역이 너무 많이 잡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투명도를 아주 세밀하게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간단한 방법이지만 결과물의 퀄리티는 천차만별입니다.



조형준 포토샵 카페

HP: 010-5359-4247

<https://cafe.naver.com/retouch3>



조형준 강사 프로필

[수상 경력]

- 2006년 국내최초 사진 회화리터칭 전문가 과정
- 2025년 국내최초 사진 입체 복원 전문가 과정
- PPA 미국사진협회 7년 연속 수상 (포토그래픽 분야)
- 독일 Digital Retouch Photographic 분야 수상
- 캐나다 Digital Art Competition 국제공모전 대상
- 유럽 International Photo ART 4RD Prize 수상
- 서울경제·고려대 블록체인 연구소 주관 NFT 대상
- 서울옥션·업비트 NFT 사진분야 1위 수상
- 할리우드 Weta Digital 컨셉아트 전문가부문 수상

[강의 경력]

- 뉴욕대 사진학과 사진 아트웍 강의
- 중앙대 예술대학 사진학과 아트웍 강의
- 건국대 포토그래피 사진 아트웍 강의
- 한성대 멀티미디어학과 아트웍 강의
- 가천대 광고영상학과 사진 아트웍 강의

선배님의 사진, AI로 되살리다

흑백 채색 복원과정 인공지능(AI) 활용 워크플로

| 사진작업 김영우 서울지회 부지회장
|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디지털 시대, 사진가의 작업실은 이제 카메라 앞만이 아니다. 촬영 이후의 후반 작업 공간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인공지능(AI)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칼럼은 흑백 원본 사진을 AI 채색 복원하는 전 과정을 실제 작업 사례를 통해 단계별로 살펴본다. 작품원본은 1969년 6월 회보에 실린 성문산 선배님의 작품이다.



① 원본



② 오른쪽 어깨, 얼굴형, 옷이 바뀜

① 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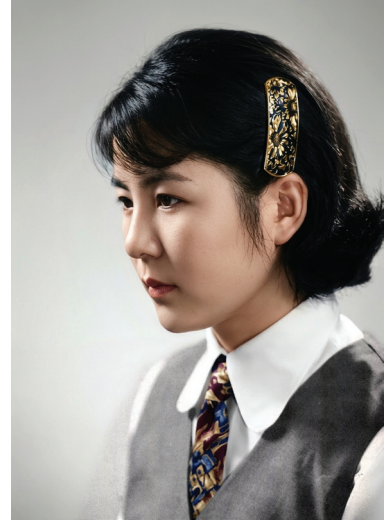
체크무늬 헤어핀을 꽂고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맨 인물의 옆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으나, 색채 정보는 전무하다. AI 채색의 성패는 이 원본의 해상도와 명암 대비 품질에 크게 좌우된다.

② 1차 AI 적용 결과

생성형 AI 제미니(Gemini)로 채색을 시도한 첫 번째 결과물에서 즉각적인 오류가 발견됐다. 오른쪽 어깨선과 얼굴형이 원본과 달라졌고, 의상 형태까지 임의로 바뀌었다. 이는 AI가 맥락을 자의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오류 유형으로, 생성 결과를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③ 교복컬러 어색함



④ 눈꺼풀 교정

- ③ **2차 AI 적용 결과** 프롬프트를 조정해 재생성한 결과물에서는 어깨 부분이 원본에 맞게 개선됐다. 다만 의상 색상이 여학교 교복 색상이라 하기에는 어색한 배색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가 발견됐다.

- ④ **3차 AI 적용 결과** 세 번째 시도에서는 원본과 가장 근접한 형태를 얻었으나, 눈꺼풀 표현이 원본과 다르게 생성되는 오류가 확인됐다. 얼굴의 세밀한 부분은 AI 채색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⑤ 포토샵 눈섭 교정



⑥ 플렉스와 제미니AI 디테일 편차

- ⑤ **포토샵 적용 수정·보완** AI 결과물만으로는 완성에 이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포토샵(Photoshop)을 활용한 수작업 보완에 들어갔다. 원본 형태에 맞춰 눈썹을 새로 그려 넣었으며, 세부 표현을 원본에 가깝게 정리했다. AI와 전통적 디지털 보정 도구의 병용이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단계임을 알 수 있다.

- ⑥ **플렉스(Flux) 모델 비교 적용** 동일 작업을 최신 AI 이미지 생성 모델 플렉스(Flux)로도 병행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제미니(Gemini) 대비 세부 표현의 완성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이후 해당 작업에서는 플렉스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됐다. 동일한 목적이라도 AI 모델별 특성과 결과물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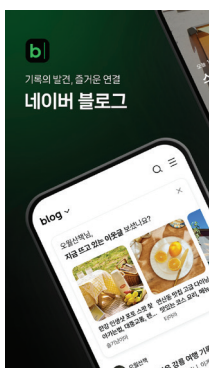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AI 채색 복원 작업은 단순히 버튼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며 도구를 선택하는 과정 전체가 작가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창작 행위다. AI는 강력한 보조 도구이지만, 결과물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진가의 눈과 손이다.

고객의 발걸음은 검색에서 시작된다 🔍

| 남유형 사진문화위원장

결혼 10주년을 앞둔 부부가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계획한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 지인에게 묻거나, 스마트폰을 든다. '○○시 리마인드 웨딩 스튜디오'를 검색하고, 결과를 훑어보고, 작품 사진과 리뷰를 확인하고, 전화를 건다. 이 과정이 방문 전날까지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과정 어딘가에 없으면 존재 자체를 모른다. 고객의 여정을 모르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막연히 '홍보를 해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것이 온라인 마케팅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

▶ 고객의 검색 경로를 따라가보자



고객이 사진관을 찾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네이버 지도다. '내 근처 사진관', '○○동 가족사진'처럼 위치 기반으로 검색한다. 지도에 나온 결과 중 사진이 풍부하고 리뷰가 많은 곳이 클릭을 받는다. 두 번째는 블로그다. '순천 증명사진 잘 찍는 곳'처럼 정보를 찾는다. 블로그 포스팅이 많은 사진관이 검색 결과에 자주 등장한다.

세 번째가 빠르게 늘고 있다. AI 검색이다. ChatGPT나 네이버 AI에게 '우리 지역 가족사진관 추천해줘'라고 묻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AI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분석해서 답을 만든다. 블로그와 플리에스에 정보가 충실하게 쌓인 사진관이 AI의 답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 두 개의 창구가 핵심이다



세 경로 중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다. 네이버 플리에스와 블로그다. 플리에스는 지도 검색의 핵심이다. 기본 정보가 잘 갖춰진 플리에스가 지도에서 먼저 보인다. 블로그는 정보 검색과 AI 검색 모두에 작동한다. 꾸준히 올라간 포스팅이 많을수록 다양한 검색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두 개가 잘 연결될 때 효과가 배가된다. 지도에서 우리 사진관을 발견한 고객이 블로그를 찾아 작품 사진과 후기를 보고 신뢰를 쌓은 뒤 예약한다. 플리에스가 입구라면 블로그는 전시실이다. 입구만 있고 전시실이 없으면 들어온 손님이 돌아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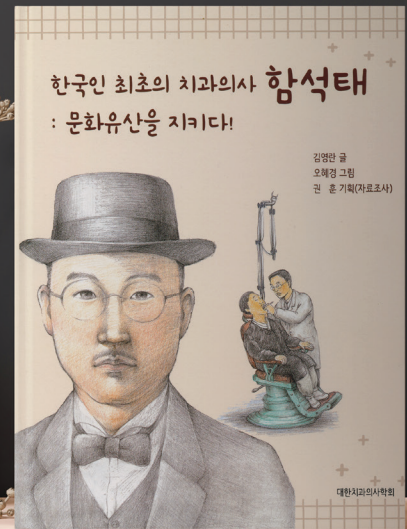
▶ 고객의 눈으로 한 번만 보면 된다

고객의 여정을 이해하고 나면 준비해야 할 것이 명확해진다. 플리에스에 사진이 충분히 있는가. 영업시간과 연락처가 맞는가. 블로그에 우리 사진관을 소개하는 포스팅이 있는가. 검색이 됐을 때 고객이 볼 수 있는 정보가 있는가.

지금 당장 고객의 눈으로 한 번만 검색해보자. '내가 처음 오는 사람이라면 이 결과를 보고 전화를 할까?' 그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하는 것이 시작이다.

위인전기와 학회지 표지로 재탄생된 사진복원

| 사진복원 김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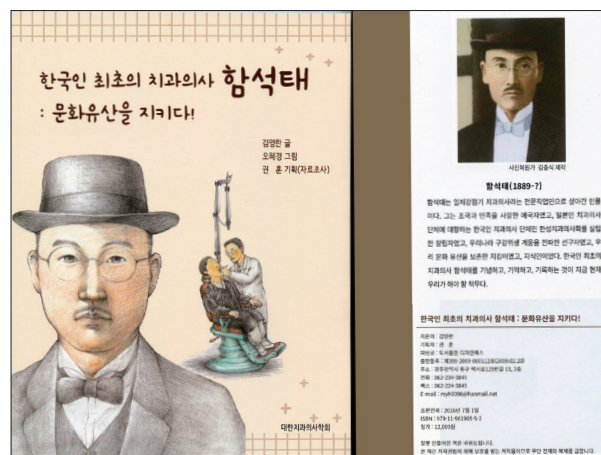
함석태(咸錫泰, 1889년~미상) 선생의 사진이 최근 출간된 책과 학술지에 나란히 실렸다. 함석태 선생은 일제강점기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 애국자였으며, 일본인 치과의사 단체에 대항해 한국인 치과의사 단체인 한성치과의사회를 설립한 창립자였다. 우리나라 구강위생 계몽을 전파한 선구자였고, 흩어져 있던 우리 문화 유산을 직접 수집하고 보존한 지킴이이자 지식인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손상돼 있던 원본 사진은 복원 작업을 거쳐 인물의 표정과 복장이 뚜렷한 사진으로 되살아났다. 이렇게 복원된 사진은 위인전기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 문화유산을 지키다!」의 표지·삽화자료로 활용됐다. 해당 도서는 김영만 글, 오혜경 그림, 권훈 기획(자료조사)으로 도서출판 디자인에스에서 2026년 7월 1일 초판 발행됐다. 표지에는 복원 사진을 바탕으로 한 인물 드로잉과 함석태 선생이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을 재현한 삽화가 함께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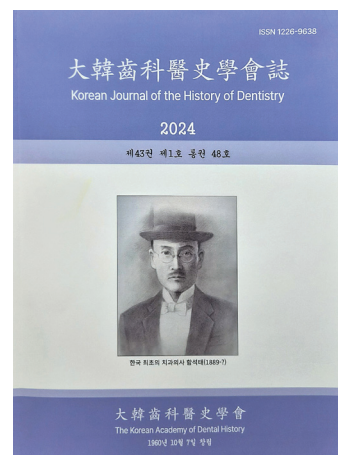
같은 복원 자료는 2024년 대한치과의사학회가 펴낸 「대한치과의사학회지(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제 43권 제1호 통권 48호 표지 드로잉의 바탕으로도 쓰였다. 1960년 10월 7일 창립한 대한치과의사학회의 학회지 표지에는 복원된 원본 사진을 참고한 인물 드로잉과 함께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1889~?)'라는 설명이 나란히 실렸다.



원본



위인전기 책자



2024년 대한치과 의사 학회지 표지

구름이 없는 이유

“핸드폰으로 찍은 건 구름이 다 살아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 최병희 홍보위원

몇 년 전 야외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날은 구름이 유난히 아름다운 날이었다. 하늘 한가득 크고 흰 구름이 두둑하게 쌓여 있었고, 빛이 그 사이로 비스듬히 내리쬘고 있었다. 신부는 한복을 입고 그 하늘 아래 서 있었다. 사진으로 담으면 너무 예쁜 장면이었다. 문제는 역광이었다.

그날도 나는 역광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역광은 얼굴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표현해준다. 하지만 역광에서는 늘 선택을 해야 한다. 신부의 얼굴에 노출을 맞추면 하늘은 하얗게 날아가고, 하늘의 구름을 살리면 신부의 얼굴은 어두워진다. 이것은 카메라의 한계가 아니라 빛의 물리법칙이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당연히 신부의 얼굴을 선택했다. 얼굴이 아름답게 나와야 좋은 웨딩 사진이라고 생각했다. 구름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수십 년 동안 사진을 찍으며 쌓인 경험이 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때, 예쁜 딸을 시집보내는 신부 어머니가 내 옆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는 촬영에 집중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딸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촬영이 끝나고 셀렉팅 자리에서 신부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작가님, 그날 구름이 정말 예뻐요. 근데 작가님이 찍은 사진엔 구름이 없네요. 그런데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건 구름이 다 살아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부끄러웠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분이 옳았으니까.

HDR, 핸드폰이 이미 해결한 문제

핸드폰 카메라에는 HDR(High Dynamic Range)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다.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하면 밝은 하늘과 어두운 얼굴을 한 번에 담는 것이다. 여러 장을 연속으로 찍어 합성하는 방식으로, 버튼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작동한다.

그분은 그냥 핸드폰을 들고 셔터를 눌렀을 뿐이다. 기술을 몰라도 됐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핸드폰이 알아서 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배우고 익힌 노출 계산, 그 복잡한 사진 기술이 핸드폰의 자동 기능 하나에 순간 밀린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 단숨에 무의미해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 있을수록 비슷한 경험은 반복됐다.

어느 결혼식 날이었다. 비가 내려 습기가 가득한 날이었다. 실내 본식 촬영이 끝나고 비가 그쳐 교회 전경 컷을 찍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갑작스러운 온도 차 때문에 렌즈에 성애가 끼어 촬영이 어려웠다. 장비를 정비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급한 장면들은 핸드폰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사진을 확인해 보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더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때 처음 실감했다. 핸드폰은 단순히 작은 카메라가 아니었다. 환경 변화에 스스로 적응하고, 순간순간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도구가 되어 있었다.

DSLR과 핸드폰, 무엇이 더 좋은 사진인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손님이 조명 공부를 하러 왔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DSLR은 이미 써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느낌이 안 나왔다고 했다. 결론은 핸드폰으로 찍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분이 경쟁 쇼핑몰 사진을 보여줬다. 잘 팔리는 상품 사진들이었다. 대부분 핸드폰으로 찍은 것들이었다. 스튜디오에서 DSLR로 찍은 것보다 질감이 더 살아있고, 색이 더 자연스럽고, 손에 잡힐 것 같은 느낌이 강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디지털 카메라와 핸드폰 카메라, 같은 장면을 동시에 찍었을 때 일반 고객이 어느 사진을 선택할까.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핸드폰 사진을 선택한다. 구름이 살아있고, 얼굴색이 자연스럽고, 뭔가 더 진짜 같은 느낌. 이게 핸드폰 카메라가 발전한 방향이다. 전문가 수준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시가 실시간으로 장면을 읽고 사람이 보기 좋은 결과물을 내놓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야 시장이 보인다

사진 작가들 사이에서 핸드폰 사진은 오랫동안 폄하의 대상이었다. “그게 무슨 사진이야.” “제대로 찍으려면 카메라를 써야지.”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나도 그랬다. 솔직히 말하면 오래 그랬다.

그런데 구름 사진 사건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수십 년간 공부한 기술이 고객의 핸드폰 자동 기능에 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했다. 불편하지만 사실이다. 핸드폰 사진을 폄하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제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 핸드폰 사진이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찍은 수만 장의 사진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남겨줄 것인가. 그것이 사진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다. 고객이 찍어온 구름 사진을 우리가 더 잘 편집하고, 더 잘 묶어서, 더 오래 남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다. 우리가 잘 찍는 것만큼이나, 고객이 잘 찍은 것을 잘 다뤄주는 것이 지금 사진관에 필요한 능력이다. 구름이 없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나를 오래 생각하게 만들었다.

PHONE to BOOK



고객의 핸드폰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진관이 찍어준 사진은 예뻐니다
고객이 매일 찍어온 사진은 진짜입니다
두 가지가 만나면 완전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쁜 것과 진짜를 한 권의 책에 담아드리는 것
이제 사진관과 폰투북이 함께합니다

[제품특징]

- 200페이지~300페이지 구성
- 다양한 사이즈 (10X10부터 14X11까지)
 - 160g의 프리미엄 용지 사용
- 실제본 기반 핸드메이드 제작으로 튼튼한 내구성
 - 다양한 커버 및 이니셜 각인

폰투북 | 010-8711-5318

“다시 보정해 주세요.”

올해도 성수기 내내, 그 한마디에 갇혀 계십니까?

이제, 학생이 직접 보정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자기 사진을 다듬고, 스튜디오은 완성본만 받아 검수·인쇄합니다.
개발과 검증을 마친 이 시스템을 정식 서비스 전에,
실제 현장에서 함께 완성할 파트너 스튜디오 15여 곳을 모집합니다.

01

처음 봐도 1분

학생은 QR로 접속해 스마트폰으로
슬라이더만 움직이면 됩니다.
잡티는 톡 눌러 지웁니다.
배우지 않아도 쓸 만큼 쉽습니다.

02

재작업 제로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직접 하니
“다시 해주세요”가 원천적으로 사라집니다.
성수기 보정 인력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03

본인 얼굴 그대로

생성형 AI로 얼굴을 다시 그리지 않습니다.
과한 변형은 시스템이 막습니다.
학부모가 봐도 “우리 아이”입니다.

◆ 이런 대표님을 찾습니다

- 학교 졸업사진을 직접 **영업·촬영·보정·납품**하시는 분
- 성수기 보정 재작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겪어보신 분
- 부족한 점을 지적이 아니라 **개선으로 함께 채우실** 분

◆ 파트너가 얻는 것

- 시범 시즌 **우대 조건 도입**
- 현장 의견의 기능·운영 반영 — 개선 과정 참여
- 지역 **총판·대리점 우선권**
- 서비스 확산에 따른 **수익 배분**

모집 15여 곳 한정 · 선착순이 아닙니다 · 상호 협의 후 함께할 곳을 정합니다

이 메 일 로 지 원 해 주 십 시 오

funfunchemi@gmail.com

스튜디오명 / 위치 (도·시, 예: 경기도 광주시) / 성함 / 핸드폰 번호 /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진은 공짜가 아니다

1978년 봉사권을 논한 김영상 이사장에게, 무료 가족촬영을 묻다

| 홍보위원장 한장훈

197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협회 사무국에서 김영상 이사장과 회원 임표택이 마주 앉았다. 회보 특집 「터놓고 합시다」에 실린 이 대담에서 임표택은 사진관이 영세성(零細性)을 벗어나지 못하는 첫째 원인으로 가격 문제와 봉사권(奉仕券) 문제를 꼽았다. 무료촬영권인 봉사권이 사진의 값을 스스로 떨어뜨린다는 지적이었다. 그로부터 48년, 봉사권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으나 그 자리를 '무료 가족촬영'이 대신 채웠다. 김영상 이사장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무엇이랄까. 말했을까. 당시 그가 남긴 발언을 토대로 그 목소리를 가상으로 재구성한다.

故 김영상 이사장은 먼저 이렇게 물을 것이다. “무료라는 말이 정말 무료인가.” 그는 1978년에 이미 사진은 회사에서 만드는 인스턴트 제품이 아니라 기능이 만들고 솜씨가 만드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못 박았다. 우리 협회가 공공부가 아니라 문공부에 속한 까닭도, 사진이 장사만이 아니라 솜씨와 작품에 관한 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변호사, 의사, 사진인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말도 그때 덧붙였다. 그런 그에게 가족사진을 공짜로 찍어 준다는 오늘의 풍경은 낯설 것이다. 작품을 공짜로 내놓는 일은, 내 솜씨에 값이 없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故 김영상 이사장은 진열장 이야기를 다시 꺼낼 것이다. 1978년 그는 진열장을 사람의 얼굴에, 상표에 비유했다. 나는 이런 솜씨로 여러분의 초상을 만들어 드린다는 표시가 진열장인데, 정작 남의 사진을 사다 걸어 놓으면 고객이 어떻게 그 솜씨를 구분하겠느냐고 그는 물었다. 임표택도 잡화상 라면이 어디나 똑같듯 남의 견본을 걸어 놓는 것은 스스로 위신을 깎는 일이라고 맞장구쳤다. 김영상 이사장은 그것을 돌팔이 의사가 손님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무료 가족촬영도 그는 같은 자리에 놓고 볼 것이다. 공짜로 손님을 불러들인 뒤 액자와 앨범, 추가 인화로 값을 채우는 구조라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라 또 다른 기만이 된다. 무료라는 말에 이끌려 온 손님은 작품이 아니라 상술을 만나게 되고, 사진인은 다시 한번 싸구려로 내려앉는다.

그가 던진 화두는 결국 자세(姿勢)였다. 1978년 그는 20년, 30년을 해 온 사진관을 가 봐도 무자격 사진사와 다를 바가 없다며, 시설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사진의 수준도 얼른 봐서 알 수 있을 만큼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한두 달 배운 비전문가가 버젓이 사진관을 내는 현실을 두고 임표택이 허가제나 등록제를 물었을 때, 그는 그것이 관(官)

◆ 특집 : 이사장과 회원 대담 ◆ 터 놓고 얘기 합시다



한때와 현재에 있는 우리 2인자 회원들이 협회와 만나서, 이사장과 만나서, 그에게 회장을 맡아 준이기에 회장이 되고 싶고,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 : 김 영상 이사장 임 표택 회원
장 소 : 협회 사무국
일 시 : 197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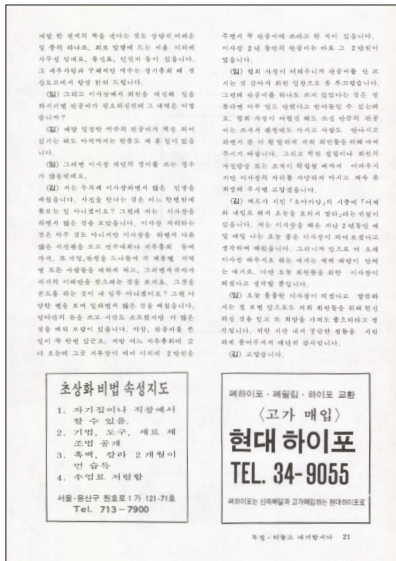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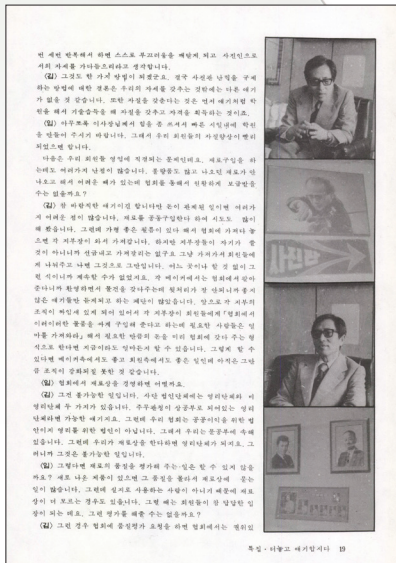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정주배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이사장이거나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이사장과 회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대신 협회가 연수원이나 학원을 세워 기술을 습득시키고 국가 고시를 거쳐 자격증을 얻게 하는 길을 제시했다. 무료 가족촬영이 시장을 흐리는 오늘도 그의 처방은 같을 것이다. 값을 지키는 힘은 관의 규제가 아니라 손님에게 인정받는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모든 무료 촬영을 나무라지는 않을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 영정(影幀) 한 장 없는 노인을 위한 참된 봉사라면 그것은 사진인의 긍지가 빛나는 자리다. 그가 경계한 것은 언제나 값을 미끼로 삼는 기만이었지, 마음에서 우러난 봉사가 아니었다. 그는 사진인이 기술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내 솜씨로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 봉사와 오늘의 무료 마케팅은 이름만 닮았을 뿐 뿌리가 다르다.

규제를 묻는 물음에도 그의 답은 한결같을 것이다. 1978년 김영상 이사장은 사진관 난립을 규제하는 길은 회원 각자가 자세를 바로 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옛 법원 판결을 빌려 “법은 값있는 것, 지켜 줘야 할 가치가 있는 것만 지켜 준다”고 했다. 사진 기술은 세계 각국이 소중하게 행사하는 것인데 어떤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는 안타까워했다. 사진을 공짜로 부리는 순간, 그 사진은 지켜 줄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무료 가족촬영이 넘치는 오늘, 그의 말은 더 날카롭게 되살아난다. 값은 관이 지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진인 스스로가 세우는 것이다.

임표택은 그때 사진계에도 새마음 운동 같은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했고, 김영상 이사장은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고 화답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다가도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자세를 가다듬게 된다는 논리였다. 오늘의 무료 경쟁 앞에서도 그는 아마 같은 처방을 내릴 것이다. 한 번의 규제로 시장이 바로 서지는 않지만, 회원 각자가 값을 세우는 자세를 거듭 되새기면 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김영상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 카얌의 구절을 다시 읊을지 모른다. “어제와 내일로 해서 오늘을 흐리지 말라.” 봉사권을 탓하던 어제에 머물지도, 무료 경쟁이 끝날 내일을 기다리지도 말고, 오늘 손님에게 인정받는 한 장의 작품을 내놓으라는 뜻이다. 그는 두 차례 이사장을 지내며 판공비 한 푼 쓰지 않고, 지방 지부장이 건넨 2만 원이 2년간 판공비의 전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오늘 좋은 이사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을 지금의 우리에게 옮기면 이렇게 된다. 날마다 오늘 좋은 사진인이 되겠다고.

· 編輯者 註

봉사권과 무료 가족촬영은 48년의 시차를 두고 되풀이되는 같은 질문이다. 공짜라는 이름으로 사진의 값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 과연 회원 모두에게 이로운가. 1978년의 김영상 이사장은 그 답을 이미 내놓았다. 사진의 가치는 진열장에 걸린 가격표가 아니라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의 솜씨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위 대담은 실제 발언이 아니라 1978년 회보 기록을 근거로 재구성한 가상임을 밝힌다.

7월 편집회의

기준부터 다시 세운다. 명칭·의전·발행 체계 정비 논의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사진 주용철 홍보위원

지난 2026년 7월 10일 홍보위원회(위원장 한장훈) 편집회의가 열려 회보 제작 전반에 대한 편집 원칙을 재정비했다. 참석자는 이경희 회장, 김동한 총무위원장, 나영균 기획위원장, 민대인 정책자문위원, 주용철 홍보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주용철 위원은 협회장으로부터 홍보위원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회 직제 표기 방식을 두고 행정 직제는 원칙대로 정식 명칭을 표기하되, 큰 제목은 전체 명칭으로 쓰고 본문에서는 축약 표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강원특별자치도지회는 본문에서 강원지회로 줄여 쓸 수 있다. 성료(盛了) 등 한자 표기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며, 한자가 없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명칭 통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각 지회별로 “연수대회”와 “세미나”라는 명칭이 혼용되고 있어 앞으로 통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문 작성 양식과 의전 순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회 행사 때마다 중앙임원과 고문, 자문 간 소속이 중복되면서 순서에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문 작성법과 회의 진행법, 태극기 위치, 의사봉 사용법 등 의전 기본 지식을 매달 한 장씩 시리즈로 회보에 게재해 지회장단과 사무국장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갯김치 등 제철 특가상품을 통합 이미지와 할인쿠폰을 더한 1페이지 구성으로 선보이며, 발행 일정은 매달 초 2~3일 발송을 목표로 하되 초기 시행 단계임을 감안해 유동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의 퀴즈는 글자 크기가 작고 응모 방법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유튜브 장비, 협찬 쿠폰 등 상품을 사전 공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지회장단 기수 표시는 제36대 등 정식 대수 표기로 통일하기로 했다.

★ 퀴즈 이벤트

퀴즈풀고 선물받자!

· 이달의 퀴즈 ·

Q. 제67회 국제프로사진세미나 개최일은 언제 일까요?

* 협회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